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by practicing virtue  
can we purify our heart  
and empty our mind.

07 2022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 차례

1. 시절 인연  
시간 밖에서 살다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자신의 의지처는 자기뿐
3. 법정 스님 따라 하기  
무소의 뿔 1
4. 법정 스님 소참법문  
분에 넘치게 이익을 바라지 말라
5. 법정 스님 흔적  
독서용 안경
6.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선견 비구에게 구하다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나를 키우는 말

###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9번 접어서 20쪽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 악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찢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음향·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탬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쓰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2년 7월 1일 발행, 통권 329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음향·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1. 시절 인연

### 시간 밖에서 살다

삼복더위에 별로 없는가. 더위에 지치지나 않았는가. 더위를 원망하지 말라. 무더운 여름이 있기 때문에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그 가을바람 속에서 이삭이 여물고 과일에 단맛이 든다.

이런 계절의 순환이 없다면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제대로 삶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 날씨가 무덥다고 해서 짜증 낼 일이 아니다. 한반도와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는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커다란 복이라 할 수 있다.

7월 한 달을 나는 바깥 출입 없이 이 산중에만 눌러앉아 지냈다. 비슷비슷하게 되풀이되는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따르면서 새롭게 살아 보고자 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집회의 약속을 이행 못하게 된 연유로 해서 모처럼 틀에서 벗어난 생활을 갖게 되었다.

때마침 건전지가 다 소모되어 시계도 멎고, 라디오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바로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람이 시계를 발명한 이래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사회생활에 여러가지로 보탬이 된 것은 지난 인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 시계에 의존하면서부터 사람들은 늘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야 하는 폐단도 있다.

먹고 싶지 않아도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먹게 되고, 잠이 오지 않는데도 잘 시간이 되었으니 잠자리에 들게 된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우리들은 시곱바늘에 조종당하면서 삶을 이루고 있다.

시계가 멎고 시간을 알리는 라디오의 기능이 쉬게 되자, 나는 비로소 시간 밖에서 살 수 있었다. 배가 고파야만 끼니를 챙기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온 후에야 잠자리에 들곤 했다. 시곱바늘이 지시하는 시간 말고 자연의 흐름을 따라 먹고 자고 움직이니 마음이 아주 넉넉하고 태평해졌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나는 비로소 자주적인 삶에 한 걸음 다가선 기분이었다. 돌이켜 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시간의 노예가 되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부질없이 살았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시계에 대한 내 최초의 경험은 불안이었다. 어린 시절, 고모네 집에 나는 자주 놀러갔었다. 고모가 잘해 주어 몹시 따랐던 모양이다. 그런데 빈방에서 혼자 놀다 보면 벽시계의 ‘똑딱똑딱’ 하는 시계추 소리가 몹시 불안하게 들려오곤 했다. 맛있는 음식을 놓아둔 채 나는 말도 없이 슬그머니 고모네 집을 빠져나와야 했다. 아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고모는 걱정이 되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있음을 확인하고 갔다.

요즘은 하나뿐이지만, 불일암에서 살 때만 해도 방마다 탁상시계가 놓여 있었다. 말하자면 시간의 노예 노릇을 충실히 한 셈이다. 그런데 아무리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도 ‘짜깁깁’ 소리가 나는 시계는 산 아래로 내려보냈다. 손님으로 가서 객실에 들어 묵을 때도 벽시

계가 됐건 탁상시계가 됐건 째깍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시계추를 멎게 하거나 건전지를 빼 두는 것이 나그네의 습관처럼 되었다. 물론 객실에서 나올 때는 원래대로 살려 놓고 나온다.

손목에 수갑처럼 치는 것이 싫어서 손목시계를 한사코 멀리해 오다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부터 외출할 때만 할 수 없이 차게 됐다. 그러니 시간의 노예임을 스스로 표시하고 다니는 꼴이다.

내가 송광사에서 수련회를 주관할 때는 수련에 들어가 기 전에 반드시 시계를 풀어서 보관하도록 했다. 모처럼 시한부 출가 생활을 하는 수련생들에게 시계의 굴레와 시간의 관념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 해서였다.

우리는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무가치하게 낭비하고 있는가. 아직도 몇 분이 남았다고 하면서. 또는 시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일없이 아까운 시간을 쏟아 버린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과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도 자투리 시간을 유용하게 쓸 줄을 안 것이다. 시곗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에 팔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알차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시간 밖에서 살 수 있다.

요즘 같은 산업 사회에서는 우리들 자신도 시간 앞에 점점 냉혹해져 가고 야박하게 전락되어 간다. 한참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다 됐다고 일손을 놓아 버리기가 일쑤다. 문헌 김에 조금만 더 일을 하면 깨끗이 끝낼 일도 시계를 보고 일손을 중단하고 만다. 이걸 시계의 노예로 익힌 나쁜 근성이다. 시곗바늘이 미치지 않는 일터에서 인간의 덕이 두터워진다는 노동의 비밀도 터

득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죽는 일도 그 시간에 속하기 때문 일 것이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나 시곗바늘에 의존하지 않으면 순간순간을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초조해하지도 말고 시간 밖에 있는 무한한 세계에 눈을 돌리면 그 어떤 시간에 건 여유를 지니고 의젓해질 수 있다는 소리이다.

세상살이에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노인은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급히 서두르지 말고 좀 더 기다리라고 일러 준다. 한 고비가 지나면 좋은 일이 됐건 언짢은 일이 됐건 인퐁의 사정이 달라지는 수가 많다. 노인들은 풍진세상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시간의 비밀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시간은 가끔 해결해 주는 수가 있다. 그래서 참는 것이 덕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우선 하룻밤 푹 자고 나서 다음 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조금씩 해결해 버리려고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책이 될 것이다.

시간 밖에서 우리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1996

##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 자신의 의지처는 자기뿐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상가라바’라는 바라문이 찾아와 부처님께 묻습니다.

“덕이 높으신 분이여, 우리 바라문은 신 앞에 제사를 올리고 희생을 바쳐 자신과 남들을 위해 재앙을 없애고 복을 비는 길을 닦습니다. 그런데 세존의 제자들이 하는 일을 보니 오로지 자신만을 다루고, 자신만을 문제 삼고, 자신의 고뇌를 없애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해 닦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물음입니다. 물론 이것이 불교의 다는 아닙니다. 출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그런 기상, 그런 의지력은 필요합니다. 자신이 우선 형성되지 않고는 남을 교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승 불교로 오면 나보다도 내 이웃에 대한 구제가 더 문제가 됩니다. 출가 수행승들로 이루어진 초기 불교 교단에 있어서는 이런 법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라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짐승을 잡아 신한테 제사도 지내고 또 여럿이 나눠 먹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데, 부처님의 출가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견성한다고 깨닫겠다고 하는 것이 같잖다는 말이겠지요. 불교라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닌가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물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문이여,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여래 정각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실천이다. 나는 이 길을 가고 몸소 실천하여 번뇌가 사라지고 해탈을 얻었다. 그대들도 와서 함께 이 길을 가면서 몸소 실천하여 번뇌를 없애고 해탈을 얻으라.’ 이 말을 듣고 그 길로 가서 해탈을 얻은 이가 수백 수천 수만에 이른다면 그래도 이 길을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생존 시에는 세속적인 의무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와 살았던 분들입니다. 자기 생애 가운데서 적어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자기 말년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가르침의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확신을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후반기인 이때에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그 밖에 어떤 고등 종교가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세상은 지금보다 얼마나 삭막하고 살벌할 것인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순도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인류에 끼친 정신사적인 영향은 막대합니다.

한 개인의 존재는 단순한 개인으로 그치지 않고 인류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류사적인 그 의미를 충분히 계발하고,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애로 그쳐 버립니다. 또한 개인이 투철한 자기 세계를 형성하기까지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성 이전에는 세속적인 의무를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눈이 열린다고 할 때 그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세계의 눈으로 확산됩니다. 이런 사실은 인류 문화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 3. 법정 스님 따라하기

#### 무소의 뿔 1

47 우리는 참으로 친구를 얻는 행복을 기린다.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대등한 친구와는 가까이 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친구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허물을 짓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48 금세공金細工이 잘 만들어 낸 두 개의 황금 팔찌가 한 팔에서 서로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팔찌가 하나일 때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두 개 이상 일 때는 서로 부딪쳐 소리가 난다. 여럿이 함께 있으면 시비가 생기고 번거로우니 혼자서 정진하라는 뜻.

49 이와 같이,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잔소리와 말다툼이 일어나니라.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살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50 욕망은 실로 그 빛깔이 곱고 감미로우며 우리를 즐겁게 한다. 그러나 한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마음을 산산이 흐트러 놓는다. 욕망의 대상에는 이러한 근심 걱정이 있는 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51 이것이 내게는 재앙이고 종기이고 화이며, 질병이고 화살이고 공포다. 이렇듯 모든 욕망의 대상에는 그와 같은 두려움이 있는 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52 추위와 더위·굶주림·갈증·바람, 그리고 뜨거운 햇볕과 쇠파리와 뱀, 이러한 모든 것을 이겨 내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53 마치 어깨가 떡 벌어진 얼룩 코끼리가 그 무리를 떠나 마음대로 숲속을 거닐 듯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54 모임(集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잠시 동안의 해탈에 이를 겨를도 없다. 태양의 후예가 하신 말씀을 명심하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잠시 동안의 해탈은 세간적인 선정禪定이란 뜻. 그것을 얻었을 때만 잠깐 번뇌로부터 놓여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태양의 후예는 부처님을 가리킴.

55 서로 다투는 철학적 견해를 초월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도달하여 도道를 얻은 사람은 '나는 지혜를 얻었으니 이제는 남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알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강론)

며칠 전 태평양을 건너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혼자서 길을 떠난 나그네의 흥가분함을 거듭 체험할 수 있었다. 국제선 여객기 안에서는 대개 혼자일 경우가 많다

저마다 자신의 그림자를 거느리듯이 삶의 무게와 빛깔을 지니고 묵묵히 허공을 난다.

잠을 자는 사람, 영화를 보는 사람, 창밖에 눈을 주어

구름이나 별을 바라보는 사람,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 혹은 책을 읽는 사람 등등 각양각색이지만, 일상을 벗어난 나그네들임은 마찬가지다.

사람은 혼자서 태어나 혼자서 죽어 간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온갖 관계를 지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속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뿐이다.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같은 생각을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외로운 존재다.

여기 소개된 <무소의 뿔>은 주로 출가 수행승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지만,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일반인들도 귀를 기울일 만한 뜻이 들어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면서도 한편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무소란 물에서 사는 짐승 가운데서 코끼리 다음가는 큰 동물인데 코 위에 뿔이 하나 솟아 있다. 그래서 ‘코뿔소’라고도 한다. 이 <무소의 뿔> 장후는 독각獨覺을 위해 말한 것이라고 주석서에는 나와 있다. 즉, 홀로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깨달음만을 위해 타인과 섞이거나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수행하는 모습을 코뿔소가 하나의 뿔을 지닌 것에 비유한 것이다. 후렴처럼 되풀이 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형식은 인도 고대의 서사시에도 흔히 나타나 있다. 혼자서 가라는 표현은 그렇게 행동하고 그와 같이 살라는 뜻이다.

이번에 길을 떠나올 때 읽으려고 구해 놓은 몇 권의 책을 짐 속에 꾸려 왔다. 그중 리처드 바크의 《소울메이

트(영혼의 동반자)》를 감명깊게 읽었다. 오랜만에 밤이 이슬하도록 책을 대할 수 있는 정복淨福을 누렸다.

리처드 바크는 우리 기억에 친숙한 작가. 그의 《갈매기의 꿈》을 통해서 “가장 높이 날아오르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내다본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으며, 그는 또 《환상幻像》의 주인공을 통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아 있는 한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일깨워 준 작가이다.

그는 기대를 가지고 영혼의 동반자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린다. 그는 자신의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리를 가르쳐 온 그 숭한 선각자들, 그들은 어째서 한결같이 홀로 살았을까? 왜 그들 곁에는 모험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정신적인 아내가 없었을까? 이 세상엔 왜 그런 놀라운 부부가 없을까? 소위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리석은 제자들과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 파묻혀 있다. 병을 고치거나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만이 그들 곁에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 곁에 멋있고 신비한 여인, 영혼의 동반자가 있는 걸 본 적이 있는가?

깨달았다는 사람들, 내 생각에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었다. 이들 선각자들은 인간적인 욕구를 넘어섰기 때문에 영혼의 동반자 따위는 소용없었던 것일까?”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4. 법정 스님 소참법문

### 분에 넘치게 이익을 바라지 말라

아홉째,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결코 크고 많은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저 입만 벌리면 경제 타령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생활에 경제가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 경제에만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분에 넘치게 소비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일찍이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자꾸 욕심껏 담기만 하려고 했던 과보예요.

오늘의 불황은 우리 마음이 그만큼 빈약하다는 증거예요. 그릇을 키우려면 눈앞의 이해관계에 매달리지 말고 덕을 길러야 합니다. 개체를 넘어서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소욕지족(小欲知足),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만족할 줄 모르면 늘 갈증 상태에 머물러요. 작은 것을 갖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넉넉해져요.

## 5. 법정 스님 흔적



### 독서용 안경

은사 스님께서는 두 안경이 있었습니다. 독서용 안경과 일반 안경입니다. 이 안경은 독서용 안경입니다. 스님은 어느 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눈이다.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번들거리는 저 탐욕의 눈에서 우리는 그 마음의 명암을 읽을 수 있다.

탐욕의 안개가 자신의 시야를 가로막는다.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도수 높은 안경을 쓸 것이 아니라 허심탄회한 빈 마음을 가져야 한다.”

스님께서 이 안경으로 보신 것은 글자보다는 정작 마음 아니었을까요?

## 6.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 선견 비구에게 구하다

선재동자는

보살의 머무는 행이 아주 깊음을 생각하고,  
보살의 증득한 법이 깊음을 생각하고,  
보살의 들어간 곳이 깊음을 생각했다.

또 중생의 미세한 지혜가 깊음을 생각하고,  
세상의 생각을 의지해 있음이 깊음을 생각하고,  
중생의 짓는 행이 깊음을 생각했다.  
중생의 마음 흐름이 깊음을 생각하고,  
중생의 그림자 같음이 깊음을 생각하고,  
중생의 이름이 깊음을 생각하고,  
중생의 말이 깊음을 생각했다.

또 장엄한 법계가 깊음을 생각하고,  
갖가지 업과 행이 깊음을 생각하고,  
업으로 장식된 세상이 깊음을 생각하면서  
점점 남쪽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삼안국三眼國에 이르러  
성읍과 마을과 골목과 저자와  
시내와 들녘과 산골짜기 등으로 두루 다니면서  
선견 비구를 찾다가,  
숲속에서 거닐고 있는 그를 보았다.

그는 한창 나이로 용모가 아름답고 단정했다.

검푸른 머리카락은 오른쪽으로 돌아  
어지럽지 않았고,  
머리에는 육계肉髻가 솟고  
금빛 피부에 목에는 세 줄 주름(三道)이 나 있었다.  
이마는 넓고 흰칠하며  
눈은 시원스러워 푸른 연꽃 같고,  
입술은 붉고 깨끗해 빈바頻婆 열매 같았으며,  
가슴에는 만근 자가 새겨져 있었다.  
일곱 군데가 평평하고,  
팔은 기늘고 길며,  
손가락에는 그물막이 있고,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금강륜金剛輪이 있으며,  
몸매는 아름다워 정거천인淨居天人 같고,  
상체와 하체가 곧고 단정해  
이구타毘伽나무 같았다.

지혜는 넓어 큰 바다와 같고,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행하던 평등한 경계를 얻었고,  
큰 자비로 모든 중생을 가르쳐  
잠시도 버리지 않았다.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하고  
여래의 법안法眼을 열어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여래께서 가시던 길을 밝기 위해서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자세히 살피면서  
거닐고 있었다.

선재동자는 선견 비구에게로 나아가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합장하며 서서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해  
보살행을 구하고 있습니다.  
듣건대 성자께서 보살도를  
잘 열어 보이신다 하시니, 원컨대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야 할지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선견 비구가 대답했다.

“선남자여,  
나는 어리고 출가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승에서  
38항하사 부처님 처소에 머물며  
범행梵行을 깨끗이 닦았다.  
어떤 부처님 처소에서는  
하루 낮 하룻밤 동안 범행을 닦았고,  
어떤 부처님 처소에서는 7일 7야 동안  
범행을 닦았으며,  
또 다른 부처님 처소에서는  
반달 한 달 또는 1년 10년을 지내기도 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 나를 키우는 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내가 오직 연꽃을 사랑함은  
진흙 속에서 났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결에 씻겨도 오염하지 않기 때문이다.  
속이 비어 사심이 없고  
가지가 뻗지 않아 흔들림이 없다.  
그 그윽한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고  
그의 높은 품격은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연은 꽃 가운데 군자라 한다.

-법정 스님

###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소리 활동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직접 반찬 조리를 하지 못하고, 반조리 식품을 구입하여 나눠 드렸는데, 7월부터 조리장에서 반찬 소리 활동을 재개합니다. 우선 목요일에 전체 지원 가구수에 맞춰 조리 식품 1가지와 대체 식품 1가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차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참여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못했던 봉사자가 계셨을 텐데, 다시 마음을 내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중앙 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 가정 460여 가구에 밑반찬 2가지와 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과 정월대보름, 부처님 오신 날에는 생필품을 나누며,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봉사자 지원 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 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만발식당 급식 봉사 활동이 중단되었는데, 지난 5월부터 점심 급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자원 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으며, 급식 봉사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 활동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생태 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 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생태 사찰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꽃 가꾸기와 더불어 한국 사찰에 맞는 화단 조성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길상사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길상사 경내 화단 꽃 가꾸기, 물 주기, 잡초 제거 활동을 봄부터 늦가을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 2022년 제3기 맑고 향기롭게 대학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지난 5월 29일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은 '맑고 향기롭게&법정 스님 소개' 장학사업 경과 보고 → 장학생 다짐 선서 → 증서 수여 → 이사장 스님 축사 → 장학생 퍼스널 브랜딩 → 장학생 장기 자랑 → 장학생 조별 미션 발표 → 단체 사진 촬영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사장 덕조 스님은 “전문 심사위원이 많은 학생들의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성적과 성품, 역량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게 되었으며, 특히 불자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많지 않은데, 맑고 향기롭게 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정진하길 바라며, 여러분들이 정화수 같은 역할을 해 주어서 후배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했습니다. 장학생들은 마음, 세상, 자연 3개 조로 나뉘어 한 해 동안 자발적인 사회 공헌 활동 및 분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장학사업은 1994년 창립 시부터 시작해 올해로 29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까지 총 717명의 중고등학생을 지원했고,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대학생 장학사업으로 전환, 올해까지 약 12억 1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 장학금 후원 동참 계좌 :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맑고 향기롭게

#### 법정 스님 법문 기록 <<꽃한테 들어라>> 출간

(사)맑고 향기롭게에서 법정 스님의 육성 법문을 가려 엮은 법문 모음집 <<꽃한테 들어라>>를 출간했습니다. 법정 스님 12주기 추모 법회 즈음에 공개된 육성 법문 데이터 36편을 복원·복구해 정리한 오디오북 <<법정 스님 108법문>> 중 녹취 및 문어 정리가 우선 마무리된 13편을 수록했습니다.

내용은 법정 스님이 생전에 늘 그랬듯 세상 모든 존재에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꽃이 피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을 상상하며 돈타령하느라, 세상 일에 휘말려 꽃이 핀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지금 사람들에게 얼마나 스스로답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 속에는 특정한 곳이 아닌 내 주변 어디에나 피는 꽃을 살피라는 따뜻한 조언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사장 덕조 스님은 “법정 스님을 그리워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그동안 맡아 보관하던 법문 기록을 공개한다”는 기획 의도를 밝히며 “스님은 가셨지만 시공을 초월해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법문으로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고요할 날 없이 고난과 분노가 뒤섞인 나날들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행복을 향한 깨달음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대에, 맑고 향기롭게 회원 그리고 길상사 신도 더 나아가 우리 불자들에게 법정 스님의 법문 한마디의 가르침이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책의 인쇄 수익금은 (사)맑고 향기롭게 장학 기금으로 사용되어 우리 사회를 더 맑고 더 향기롭게 만드는 일에 쓰일 것입니다. (지식음문드레지식 출판)

#### 덕조 스님 <<다시 여행을 시작하는 그대에게>> 출간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 덕조 스님의 두 번째 에세이가 출간되었습니다. '아침을 여는 덕조 스님의 향기 소리'에 날마다 쓴 글과 불일암 주변의 사계절 모습, 티베트 등 여행길에서 찍은 사진을 가려 뽑은 에세이집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새 아침을 열었던 그 글귀 가운데 엄선한 330여 편의 마음 맑히는 아포리즘과 눈 밝히는 40여 장의 컬러 사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특히 이해인 수녀님이 “스님이 초대하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뜰에서는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도 행복한 경험을 하는 일상의 여행자, 기도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요즘 필요 이상으로 바쁘게 살며 명상보다는 망상을 더 많이 하는 저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마음으로 찬찬히 읽어 본 스님의 새 책이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길 기원한다”는 추천의 글을 써 주었습니다. (김영사 출판)

#### 후원 회원 가입 및 후원 방법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 모임으로 100% 회원들의 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정기 비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온라인, 지로)까지 스스로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글이 담긴 알차고 소박한 월간지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후원이 부담되는 분은 연간 최소 경비(1만 원 이상)만 후원해 주시면 월간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후원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사무국 방문, 팩스, 전자 우편, 우편을 통해 가입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7월 중앙 모임 정기 활동 안내

#####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지원 활동 : 5일(화)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책 읽기 소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 오전 10시 /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 오전 10시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모임 : 매주 목요일 / 오후 1시 / 세계일화실

#####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생태 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 / 길상사 경내

##### ● 정기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처음 봉사 활동에 참여하 시고자 하는 분은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 봉사 활동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정기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 조리 활동(10시~13시), 배달 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 시설) 정기 방문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 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정기 방문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 재료 다듬기, 청소 등

### ● 모임

● 시민서로배움터 :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 ● 지원 사업

●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 봉사 활동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 모임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 오전 11시

### ● 후원 활동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 봉사 활동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 모임

● 독서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노래 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천연 화장품 만들기 : 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만들기

### ● 후원 활동

● 장학 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비 지원

###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각 지부 사무국 문의 후 참여해 주세요.

## 기쁜한절길상사소식

### 길상사 (02)3672-5945/전송:(02)3672-5947

#### ●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7월 2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기도는 극락전, 설법전 및 극락전 마당 천막에 제한된 인원만큼 분산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길상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에 중계되며 개인별 발원 내용을 자막으로 올려 드립니다.

#### ● 백중 아미타기도 및 백중 49재(천도재)

● 시간 : 오전 9시 50분 / ● 장소 : 극락전

초재	7월 1일(금)	선망 조상을 위한 천도재
2재	7월 8일(금)	낙태 영가를 위한 천도재
3재	7월 15일(금)	호국 영령을 위한 천도재
4재	7월 22일(금)	선망 조상을 위한 천도재
5재	7월 29일(금)	반려동물 천도재 (조축)
6재	8월 5일(금)	선망 조상을 위한 천도재
막재	8월 12일(금)	선망 조상을 위한 천도재
백중 초재(7월 1일)에는 선망 조상 영가 천도를 위한 승무공양(바라춤)이 있습니다.		

● 영가 지못 접수받습니다. 종무소에서 접수 후, 영단 옆에 마련된함에 올려 주시면 됩니다.  
● 영가 지못은 막재 때 소전해 드립니다.  
● 낙태 영가를 위한 2재에는 어린이나 유아들이 좋아하는 과자, 우유 등(유제품, 사탕 등)을 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 5재는 특별히 집에서 기르던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을 위한 조축이 있습니다.  
● 반려동물들을 위한 영단을 따로 간소하게 만들어 조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들이 좋아하는 간식 등을 동물 영단에 올려 주시면 됩니다.

#### ● 백중 가사불사 모연

백중, 우란분절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옷이자 승보에게 올리는 가장 소중한 공양인 가사불사에 동참하시어 숙세의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를 증득하여 모두 부처님 되시기를 발원합니다.

● 동참금 : 자율 보시(5만 원 이상 동참자 축원)  
● 입금 계좌 : 신한은행 140-003-875653 / 길상사

#### ● 7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 기도

기도명 / 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7월 2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보름기도	7월 1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7월 16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7월 2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기도	7월 2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9시 50분 오후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오전 9시 50분 오후 7시	지장전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http://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